

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지정 2026년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신청 승인 2010년부터 전략 품목 육성... 품질·브랜드 가치 제고 기대

해남군은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이하 고구마산업특구)' 지정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지난 6월 해남군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구마를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해 해남고구마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지난 2010년 특구(6502만 52㎡)로 지정된 고구마산업특구는 고구마 생산 및 자원화, 가공 및

산업화, 연구 및 홍보체험 등 3개 사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유통 및 마케팅 등 특화된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해남군은 고구마산업특구 운영을 통해 전체 생산면적에 무균 조식배양묘를 보급해 고품질 고구마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운영과 고구마 가공업체 지원을 통한 신산업 확대 등 고구마 산업 육성에 집중해 왔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20년에는 '전국 우수지역특구'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남고구마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구마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등에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25년까지 삼산면 평활리에 3만㎡(약 9090평) 규모의 고구마연구센터를 완공해 고구마 우량품종 선별과 재배 기술개발을 총괄 수행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국 최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해남고구마는 명실상부한 지역 특산물로 자리잡았다"면서 "이번 특구계획 승인을 계기로 해남고구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고구마 농가가 웰빙 식품으로 각광 받는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회산백련지의 야간경관.

축제 끝났지만...무안 회산백련지 연꽃 내달까지 볼 수 있다

야외물놀이장 8월25일까지 운영

"축제는 끝났지만, 8월 말까지 수백의 연꽃은 감상할 수 있다." 무안군은 나흘 일정으로 회산백련지에서 열린 '제27회 무안연꽃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연꽃은 8월 말까지 계속해서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학과 휴가를 맞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야외물놀이장도 8월 25일까지 운영된다.

'내 인생의 화양연화!'라는 주제로 열렸던 이번 축제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정 자연이 주는 휴식과 힐링을 통해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드넓은 회산백련지를 배경으로 한 야간 조명은 연꽃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연빛달빛여행으로 한여름 밤의 연꽃을 200% 즐길 수 있었다고 군은 전했다. 축제장 곳곳에 설치된 캠핑 텐트는 휴식과 힐링을 더 해 주었으며 개막 축하쇼와 연꽃애(愛)

콘서트, 화양연화 콘서트, 연꽃 군민가요제 등 다양한 공연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관람객들은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연꽃축육장, 피크닉도시락만들기, 소방안전 체험, 전통놀이체험, 황토마사지&축육체험, 황토폰발걸기 등을 즐겼다. 김산 무안군은 "내년에는 더욱 철저히 축제를 준비해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바다위 앰블런스' 완도해경 3년간 응급 이송건수 218건

완도해양경찰이 상반기에만 9건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 해상과 도서지역의 해상 앰블런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응급환자 이송건수는 218건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9건의 응급환자 이송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 완도에는 65개의 유인도가 존재하는 등 의료 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해상 긴급 이송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일에는 같은 날에만 노화도(북동)와 소안도(구토), 남도(가슴통증)에서 각각 응급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완도해양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완도해경의 모습. <완도해경 제공>

목포시, 8월 16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목포시가 공정한 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 저울 및 판 저울, 전기식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장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 전체가 해당

된다. 단 ▲상거래 이외 용도의 저울이나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 ▲2023~202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중인 저울 ▲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제외대상이다. 시는 오는 8월 16일까지 3주간 사전조사를 통해

재래시장, 정육점, 점포, 슈퍼마켓, 금은방 등을 현장 방문해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등 13개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 지정기밀 미수검사는 타 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저울 소재장소로 방문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해양치유공단, 전남여단협과 업무협약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협력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과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이채빈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과 최두레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최근 완도해양치유센터 홍보관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3개 단체 여성 리더들과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완도해양치유산업 홍보와 전남여성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해양치유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 개최 등에 대해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국내 첫 해양 관련 치유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11월 개관 이후 3만여명 넘게 다녀갔으며 한국관광공사의 '2024 우수 웰니스 관광지'



이채빈(왼쪽)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과 최두레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

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채빈 완도해양치유공단 이사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권익 증진에 앞장서는 전남여성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해양치유의 우수성을 알리고 회원들의 심신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초등학생 뉴질랜드 여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초등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출국에 앞서 군청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 섬 초등학생 30명 뉴질랜드 여학연수

8월 22일까지 4주간 일정

신안군은 지역 초등학생 30명이 뉴질랜드 여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출국했다고 29일 밝혔다. 여학연수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Elm Park School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 함께 정규수업 및 ESOL, 홈스테이,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해 영어 회화 능력을 높이고, 뉴질랜드 교육방식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또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이번 여학연수는 동시통역이 가능한 직원 1명이 추가 배치돼 병원진료 및 현장·체험학습, 홈스테이, 학교에서의 생활 등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해결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은 "앞으로도 신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여학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암군, 쌀 판매 마케팅 '쌀케팅' 역량 총동원

영암군이 지역사회 역량을 총동원해 영암쌀 판매를 위해 쌀 마케팅 '쌀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째 계속 하락한 산지 쌀값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80kg에 18만 1148원이다. 군은 계속되는 쌀값 하락 추세에 대응해 농가 소득 확보와 경영 안정, 쌀값 폭락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쌀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암쌀 소비 촉진 범군민운동'으로 10kg들이 친환경 달마지쌀 2537포(7600여 만원)를 선주문 받았다.

HD현대사호 등 대불산단 기업체, 영암군 체육회 등 기관·사회단체와 자매결연 도시를 포함해 광주와 수도권 지자체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와, 올해 5월 HD현대사호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과 임직원 등이 쌀 구매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9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최고 유통업체인 노민(Nomin) 그룹과 쌀 수출 협의를 가졌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제12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안건도 채택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